第61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行政委員會會議錄 第2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5月27日(火) 午前11時
場 所 第1小會議室

議事日程

1. 城北文化遺跡地探訪同意案

審査된案件

1. 城北文化遺跡地探訪同意案(金振權委員外1人 發議) …… 1面

(11時50分 開議)

1. 城北文化遺跡地探訪同意案(金振權委員外1人 發議)

○委員長 安傑瑢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북구의회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문화유적지탐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에 앞서 오늘 기획실장님이나 문화공보담당관님이 현재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참석을 안하신 이유와 같이 회의를 속개해야 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좋은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壽榮委員 김수영위원입니다. 지금 회의시간이 11시였었는데, 장장 1시간을 집행부서의 책임자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아가지고 회의가 김빠진 맥주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째는 그 회의록이나 또 회의안건이 이미 집행부서에 전달이 가있었을 터인데, 그 사항을 알고도 안나왔다면 고의입니다. 두번째는 그 사항을 잘못 인식을 해서 못나왔다고 하면 그것 또한 의회에 대한 경시 풍조입니다. 그렇다면 또한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유적지를 탐방한다는 것은 나가가지고 주마간산격으로 그럭저럭 훑어보고 점심이나 먹고 헤어지자는 모임이 아닌바에야 이 모임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하고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유산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성북구내에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신경을 써야될 책임부서에서 문화유적지에 대한 탐방스케줄 자체도 이렇게 펑크를 낼 정도면 아예 문화유적에 대한 우리 유산에 대한 인식조차도 안되어 있는 기초 이하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런 상태에서 우리만의 어떤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오늘의 이 안건은 차제에 적절한 시기에 다시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문제는 이대로 폐회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安傑瑢 우리 김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지금 김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이유로 오늘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성북구 문화유적지 탐방동의안은 다음 회기일정을 또 잡아서 우리가 탐방하는 것으로 보고 오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時55分 散會)

○出席委員 14人

安傑瑢	金振權	高允根
丘在永	金壽榮	柳成烈
朴時俊	徐化錫	宋夏星
申宗鉉	兪鎭武	尹晩丸
崔桂洛	崔東煥	

○缺席委員 1人

尹弘老

○參席專門委員

專門委員 崔石根